



세계를 향하여

(마 28:18-20)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 바다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2017년 3월 특별새벽집회의 주제는 ‘세계를 향하여’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주신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은 특별하고도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은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이 우주에 힘과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무궁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무 의미 없이 부르실 리는 없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창 12:1-3),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출 3:4), 갈릴리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시고(마 4:18-22), 다메섹에서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행 9:4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부름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추천을 받거나 본인이 원해서 부르시거나 세상의 좋은 기준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홀로 결정하여 부르시는 것입니다(엡 1:5).

갈 1:1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갈 1:15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와 영광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롬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30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1. 부름을 받은 자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는 부르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가리키시는 곳, 인도하시는 곳, 말씀하시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갈 1:16-18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삼 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십오 일을 머무는 동안

히 11:8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지금까지의 육신을 위한 모든 생각과 삶에서 멈추어야 하고, 버려야 하고, 끊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대로 쓰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빌 3:13-14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툇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Calling, 사명이 있습니다(클레토스, κλητός).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귀한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에크(ἐκ, ~부터)와 칼레오(καλέω, 부르다)의 합성어로 '불러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부름을 받은 자는 100% 왜 불려내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름 받기 전에는 내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부름을 받아야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날은, 최고의 기쁜 날은 부름을 받은 날입니다. 그날에 내 사명을 알기 때문입니다.

칼 힐티는 "인간 생애의 최고의 날은 자신의 역사적 사명, 즉 하나님이 지상에서 자기를 어떤 목적에 쓰시려고 하는지를 자각하는 날이다."라고 했습니다.

결혼기념일, 박사학위 받은 날, 대학에 합격한 날, 생일 그 어느 것도 최고의 날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다윗, 이사야, 엘리사, 기드온 등 모두 부르신 그날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 6:1-3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돌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돌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돌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2. 부름을 받기 전, 부름 받지 않은 자의 인생은 죄와 마귀, 사망, 저주의 쇠사슬에 매여 있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높거나 낮거나, 있거나 없거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잘났거나 못났거나 다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걱정하고,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원망불평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온갖 악한 일, 더러운 일에 빠지고, 술 취하고 방탕한 삶, 허무하고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딤후 3:3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 노릇 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요일 3:8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롬 3:13-14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롬 7:24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3. 부름을 받은 자는 사명을 가진 자이며, 사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며, 그 사명인의 삶은 새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갈 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후 5: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① 어거스틴은 타락한 길로 가던 가장 나쁜 사람이었으나, 로마서 13장 11-14절의 말씀으로 기독교 2천 년 역사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롬 13:11-14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② 원범(철종, 조선 제25대 왕)이는 강화도에서 먹고사는 것을 걱정하며 첫사랑 분이가 물 건너오는 그 하나에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나, 왕이 되어 한양으로 와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된 것입니다.

어두운 지옥의 긴 터널에서 해방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의 아침인 것입니다.